

〈帝京篇〉十首 와 ‘貞觀之治’

김승삼*

<目 次>

1. 序言
2. 〈帝京篇〉 10首
3. 太宗의 仁政
4. 太宗의 治道
5. 結言

1. 序言

제왕은 일국의 주인이다. 그의 몸은 社稷의 안위와 관계되어 있어 그들의 사상과 감정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시가에서는 그 시대의 흥망성쇠가 잘 나타나 있다.

唐의 전성시대에 文治, 武功은 천고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는데太宗이 곧 이 전성시대의 창시자이다.

태종(太宗, 626-649)은 불과 23년 재위에 있었으나 隋 말 이래의 난국을 수습하고 唐제국이 장기적으로 부강하고 태평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후세에서 그를 ‘貞觀의 治’를 이룩한 자라고 한다. 그는 중국 역사상 드물게 보이는 賢君이었다. 태종은 재주와 무예가 뛰어나 “도량이 넓고 크기는 한 고조와 같고, 뛰어난 모습은 조조와 같다.”¹⁾고 많은 이들의 칭찬을 받았다. 이처럼 위대한 중국황제의 한 사람인 태종은 문학에서도 인정받는 唐代 詩歌의 서막을 연 자이다.

* 안동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songhua@andong.ac.kr

1) 《中國通史》上, 傅樂成著, 辛勝夏譯, 宇鍾社 428쪽 世民이 晉陽에서 군사를 일으키기 전에 劉文靜은 그를 칭찬하여 “豁達類漢高祖, 神武同魏祖”라 함.

태종의 시에 대해 “음탕하고 사치스런 궁체시를 잘 지었고 그의 신하들과 똑 같이 궁체시에 빠져있다”고 종종 평가 하기도 한다.²⁾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仁政’, ‘偃武修文’했다고 찬양하는 자가 많다. 찬양하는 자 중 적지 않은 시인들이 그들의 시 속에 당 태종을 그리워 하는 표현을 하고 있다.

杜甫가 여러차례 昭陵에 가서 고적을 방문하고 쓴 〈重經昭陵〉 시에:

草味英雄起	수말 혼란한 시대에 영웅으로 일어나
謳歌歷數歸	노래부르며 정해진 운명으로 돌아가
風塵三尺劍	난세를 삼척검으로 다스리니
社稷一戎衣	조정엔 하나의 군복만 있었네
翼亮貞文德	바르게 다스리는 文德 공경하고 빛나니
丕承灑武威	위대한 업적 계승하여 무술의 위엄 멈추네
聖圖天廣大	황제의 계획 하늘만큼 크고
宗祀日光輝	종묘사직 날로 빛나리 ³⁾

위는 수말 이래 唐왕조를 창건한 태종의 업적을 노래한 시이다. 당태종의 영웅 형상이 묘사 되어있다. 또한 〈北征〉 시는 안사의 난 후에 사회의 참혹한 현상을 반영한 시인데 貞觀盛世的 그리움을 ‘煌煌太宗業, 樹立甚宏達(빛나는 당 태종의 건국업적이 더욱 크고 영원히 높게 이룩되리)’이라고 시 끝부분에 표현하고 있다.⁴⁾ 이 밖에도 劉禹錫, 白居易, 李賀등의 시에서도 태종을 찬양한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⁵⁾

본 고에서는 태종의 帝京篇 十首를 翻譯 分析하여 보고, 후세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의 仁政, 偃武修文의 治道를 살펴보려고 한다.

2. 〈帝京篇〉十首

2) 《中國文學發達史》臺灣中華書局 372쪽, 「唐太宗和他的幹部臣僚, 同樣也耽溺在這種宮體的詩風裏」 이와같은 내용이 《唐詩記事》卷一, 《全唐詩話》卷一에도 있다.

3) 《杜詩鏡銓》卷4 華正書局 350쪽.

4) 《杜工部集》卷二 〈北征〉.

5) 《劉禹錫集》卷19, 〈唐故相國李公集紀〉, 《元白詩箋證稿》第五章, 《全唐詩》卷427, 〈百鍊鏡, 辨皇王鑿也〉, 《白氏長慶集》卷27, 《李賀詩歌集注》卷二등에 두루 보임.

〈帝京篇〉序

子以萬機⁶⁾之暇, 遊息藝文. 觀列代之皇王, 考當時之行事, 軒`昊`舜`禹之上⁷⁾, 信無間然矣⁸⁾. 至于秦皇`周穆⁹⁾, 漢武`魏明¹⁰⁾, 峻宇雕牆, 窮侈極麗, 征稅殫于宇宙, 輻迹遍于天下, 九州無以稱其求, 江海不能饜其欲, 覆亡顛沛, 不亦宜乎! 予追跡百王之末, 馳心千載之下, 慷慨懷古, 想彼哲人, 庶以堯舜之風, 蕩秦漢之弊, 用咸英之曲¹¹⁾, 變爍爍之音, 求之人情, 不爲亂矣. 故觀文教于六經¹²⁾, 閱武功于七德¹³⁾, 臺榭取其避燥濕, 金石尙其諧神人, 皆節之于中和¹⁴⁾, 不系之于淫放. 故句恤可悅¹⁵⁾, 何必江海之濱乎? 麟閣可玩¹⁶⁾, 何必山陵之間乎? 忠良可接, 何必海上神仙乎? 豐鎬可遊¹⁷⁾, 何必瑤池之上乎¹⁸⁾? 釋實求華, 以人從欲, 亂于大道¹⁹⁾, 君子耻之. 故述〈帝京篇〉以明雅志云爾.

- 6) 萬機 : 제왕의 일상적인 많고 복잡한 국정 업무. 《尚書·皋陶謨》에서 나왔음.
- 7) 軒, 昊, 舜, 禹 : 古史 전설중의 黃帝 軒轅氏를 가리키고 黃帝의 아들 少昊, 虞帝舜, 夏代를 개국한 帝禹로 구별한다.
- 8) 無間然 : 《論語·泰伯》: “子曰: ‘禹, 吾無間然矣.’” 에서 나왔음. 孔子는 禹의 공덕이 극진하고 아름다움을 받들고 자신은 그 사이에 다시 섞일 수 없다고 말했다.
- 9) 秦皇 周穆 : 秦始皇이 정권을 획득하고 70여만 명을 보내어 큰 자본을 소모하여 阿房宮과 驪山왕릉을 수리(보수)하였다. 재위하는 20년간 郡縣으로 5차례 나와서 德을 기리는 것이 조각되어 있는 석재를 따라서, 수레바퀴자국이 천하에 두루 미쳤다. 周穆王 姬滿은 이미 서쪽에서 崑崙산에 이르기까지 西王母를 보았다고 전해진다.
- 10) 漢武魏明 : 漢武帝 劉徹이 통치한 후기에, 徭役, 병역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많은 농민들에 이르기까지 파산하고 유랑했다. 魏明帝 曹叡가 재위할 때 토목공사가 크게 흥하였고 사치가 극도에 달하였다.
- 11) 咸英 : 黃帝의 즐거움 《咸池》, 帝嚳의 즐거움 《五英》. 《漢書·禮樂志》.
- 12) 六經 : 유가경전을 가리킨다. 《詩》《書》《禮》《樂》《易》《春秋》.
- 13) 七德 : 곧 武에는 七德(武七德)이 있는데, 폭란(暴亂)을 저지하는 것(禁暴), 군대를 줄이는 것(戢兵), 대중을 보호하는 것(保大), 천하평정의 공을 세움(定功), 백성들을 편안하게 함(安民), 만민을 화락하게 함(和衆), 재물을 풍부하게 함(豐財)의 7가지를 가리킨다. 《左傳·宣公12年》.
- 14) 中和 : 기뻐하고 성내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情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상태를 中이라 하고, 나타나서 모두 절도에 알맞게 된 상태를 和라 한다(喜怒哀樂之未發謂之中 發而皆中節謂之和).
- 15) 溝恤 : 고대 전담 제도 十夫는 도량이 있고 百夫에는 붓도량이 있는데, 논밭 사이의 수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붓도량이라 칭하였다.
- 16) 麟閣 : 기린각(麒麟閣)의 약칭. 기린각은 漢宮의 누각 명칭이며 궁궐에 비서, 현명하고 유능한 인재를 도처에 두었다.
- 17) 豐鎬 : 豐과 鎬는 周나라의 도읍을 말하며 文王邑이 豐이며, 지금 陝西 戶縣東에 있다 ; 武王邑은 鎬이며 鎬京을 말한다. 지금 陝西 西安 서남쪽에 있다.
- 18) 瑤池 : 고대 신화에서 신선이 살고 있는 땅. 지금의 崑崙山에 있다. 西王母은 일찍이 먼 곳에서 온 周穆王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 19) 大道 : 세상을 다스리는 正道, 상식적인 도리. 《禮記·禮運》: 大道가 행해지던 시대에는 찬하를

“나는 제왕의 일상의 빈다한 정무중, 한가할 때는 예술과 문학을 감상하며 휴식을 한다.

역대 황제를 보면서 당시의 일을 고찰해 보면, 軒(軒轅氏), 昊(황제의 이들 少昊), 舜(虞帝), 禹(夏대를 개국한 황제)의 위에는 감히 있을 수 없다. 秦皇, 周穆, 漢武, 魏明 때의 높고 큰 건물, 조각하고 장식한 벽은 쓸데 없이 사치스럽고 아름다우며, 세금을 거두어 세상에 다 써버리고 바퀴자국이 천하에 고루 나도록 두루 돌아다녀 나라에서 그 구하는 것을 댈 수 없었고 강과 바다도 그 욕망을 충족할 수 없었으니 망하고 곤궁에 빠진 일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나는 여러 왕이 교체되는 과정, 천년이라는 긴 세월을 달린 세월들을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잘 생각해 보면 지혜롭고 탁월한 백성들은 요순(堯舜)의 태평한 시대에 살게 하고, 秦漢의 폐단을 없애고 황제와 제국의 즐거움으로 선명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꾼다면 사람 마음 구하는 일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인문교화는 육경(六經)으로 가르치고, 무공(武功)은 칠덕(七德)으로 교화해야 한다.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정신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누각과 정자는 단지 건조함과 습함을 피하면 되고, 금석(金石)의 음악은 신과 사람이 조화롭게 되면 되는 것이다. 모두 중용과 화해의 도(中和)에 맞게 하면 음탕하고 방종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밭 사이에 있는 도랑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면 어찌 강과 바다의 해변이 필요할까? 궁중에 있는 기린각에서 놀 수 있다면 어찌 산과 구름이 필요한가? 충성스럽고 선량한 신하를 접할 수 있다면 어찌 바다위의 신선이 필요한가? 풍(豊)과 호(鑄)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다면 어찌 옛날 西王母가 노닐던 곤륜산에 있는 요지(瑤池)가 필요한가?

실용적인 것을 버리고 화려함을 추구하여 사람 욕심을 좇는 것은 대도(大道)를 어지럽히니 군자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래서 《帝京篇》을 지어 나의 아름다운 뜻을 분명하게 하려고 한다.”

공공으로 보았고, 현명함과 유능함을 가려서 신의를 연구하여 밝히고 화목함을 닦았다.

其一

秦川 ²⁰ 雄帝宅	진천에 거대한 황제의 저택
函谷 ²¹ 壯皇居	함곡관에는 건장하신 황제가 거하지
綺殿千尋起	아름다운 궁전은 천길이나 높이 솟아있고
離宮百雉 ²² 餘	담의 길이가 삼백장이요 높이가 백장이나 되는 궁전 또 있었지
連薨 ²³ 遙接漢 ²⁴	연이어있는 지붕은 멀리 은하수에 맞닿아 있고
飛觀迥凌虛	멀리 하늘에 높이 솟아 있네
白日隱層闕 ²⁵	구름과 해는 층층 궁궐에 숨고
風煙出綺疏 ²⁶	바람과 연기는 아름다운 창문으로 흘러 들어가네

其二

岩廊 ²⁷ 罷機務	조정에서 업무 파하고
崇文 ²⁸ 聊駐輦	숭문관에서 잠시 수레를 멈추네
玉匣啓龍圖 ²⁹	옥상자에서 옛책을 꺼내어
金繩披鳳篆 ³⁰	금먹줄로 고문자를 펼치네
韋編 ³¹ 斷仍續	가죽줄로 묶은 책 끊어지면 또 묶고

20) 섬서 중부 위하(渭河) 유역일대이며, 관중(關中)이라고도 불린다. 周, 秦, 漢, 唐 등의 왕조가 계속 여기에 도움을 세웠다.
 21) 함곡관(函谷關)으로 하남 靈寶 남서쪽에 있다.
 22) 고대 성 벽으로 길이가 3장(1척의 10배), 높이가 일 장(一丈)을 일 치(雉)라고 부른다. 백치(百雉)는 규모가 굉장히 크음을 말한다.
 23) 용마루, 屋脊을 말함.
 24) 은하수.
 25) 황궁 문밖의 누각. 《說文》徐鍇注：“문 밖에 두 개의 대를 짓는데, 위에 누각을 짓고, 위는 둥글고 아래는 모나있다. 그래서, 궐(闕)은 도(道)가 이르는 궁궐이다.(“爲二臺于門外, 作樓觀于上, 上圓下方, 以其闕然爲道謂之闕.”)
 26) 꽃을 조각한 창문을 가리킨다. 《後漢書·梁冀傳》“창문은 모두 조각한 창문, 푸른 궁문(宮門)이다”의 句 [窗闥皆綺疏青瑣].
 27) 원뜻은 높고 험한 통로이며, 후에 묘당(廟堂)과 조정(朝廷)을 비유해서 썼다.
 28) 즉 숭문관(崇文館)을 말하며 관청(官署)이름이다. 정관(貞觀)때는 숭현관(崇賢館)이라고 했으며, 학사, 직학사원(直學士員)이 있어 경적도서(經籍圖書)를 담당했으며 여러 학생들을 가르쳤다. 左春坊에 속했다. 《唐六典》卷 26에 보인다.
 29) 모든 강의 지도(河圖)는 마(龍馬)가 책임지고 그렸다. 그래서 용도(龍圖)라고 하였다. 《禮記禮運》에 보인다. 여기에서는 고대 전적(典籍)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
 30) 鳥篆은 새의 발자취와 같은 전서체(篆書體) 고문자이다.
 31) 고대에 가죽줄로써 죽간을 엮어서 책을 만드는 것. 《史記孔子世家》：“(孔子)는 《易》을 읽고, 위편삼절(韋編三絶)이라고 했다” 후에 “韋編”은 《周易》에서 보편적으로 고적(古籍)을 가리

縹帙³²⁾舒還卷 쪽빛의 책 거풀 폼다가 또 접네
 對此乃淹留³³⁾ 이것으로 근심을 잊어보며
 欵案觀墳典³⁴⁾ 책상에 기대어 고전을 읽네

其三

移步出詞林³⁵⁾ 河 걸음을 옮겨 한림원에서 나와
 停輿欣武³⁶⁾ 宴 수레 멈추고 무연을 감상하네
 雕弓³⁷⁾ 寫明月 조각한 활은 밝은 달과 같고
 駿馬疑流電 준마는 번개처럼 질주하네
 警雁落虛弦³⁸⁾ 놀란 기러기 빈 시위에 떨어지고
 啼猿悲急箭³⁹⁾ 민첩한 원숭이도 쏠살같은 화살에 서글피 우네
 閱賞誠多美 감상하니 너무 아름다워
 于茲乃忘倦 여기에서 시름을 잊네

其四

鳴笳⁴⁰⁾臨樂館 호르라기 불며 악관에 도달하니
 眺聽歡芳節 좋은계절 기뻐하는 소리 멀리 들려오네
 急管韻⁴¹⁾朱弦 빠른 피리소리 붉은 현이 조화를 이루어

켰고, “위편삼절”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비유했다.

32) 본래는 열은 청색 비단을 이용해서 만든 책갈피를 가리킨다. 후에 서적을 칭하여 縹帙이라고 하였다.

33) 《全詩校》에서는 “忘憂로 썼다.

34) 《三墳》《五典》을 같이 합쳐서 칭하는 말이며, 두 가지 모두 상고시대 서적의 이름이다. 《左傳·昭公十二年》에 보인다. 후에 일반적으로 고대 전적(典籍)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35) 문장이 한 곳에 모이는 곳으로 翰林院의 별칭으로 쓰인다.

36) 《全唐詩》校注에는 “一作載”라고 되어 있다.

37) 조각하고 꾸민 활.

38) 《戰國策·文策四》: 원래 기러기가 화살을 맞아 상처입고 무리에서 떨어졌다. 활당기는 소리를 듣자 놀라서 떨어진 것이다. 후에 이것을 이용해서 좌절하는자가 마음속에 아직 공포가 남아있는 상태를 비유했다.

39) 《淮南子·說山訓》: “楚王有白猿, 王自射之, 則搏矢而熙. 使養由基射之, 始調弓矯矢, 未發, 則獼猴柱號矣”(초왕에게 흰 원숭이가 있었다. 왕이 그것을 쏘자 화살을 붙잡고 즐거워했다. 길러서 그 루터기에서 쏘려고 화살을 조정하며 쏘지 않았는데도 원숭이는 기둥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40) 귀한 사람이 외출할 때 안내자가 호르라기를 불며 길을 열어준다.

41) 소리가 서로 조화되는 것이다. 《晉書·律曆志》에 “凡音聲之體, 務在和韻.”

清歌凝白雪⁴²⁾ 맑은 가락에 따뜻한 봄 흰눈이 아름답고 우아하네
 彩鳳⁴³⁾肅來儀 아름다운 봉황새 엄숙한 자태
 玄鶴⁴⁴⁾紛成列 현묘한 학은 분분히 열을 짓고
 去茲鄭衛聲⁴⁵⁾ 정나라 위나라 음악 버리니
 雅音⁴⁶⁾方可悅 좋은 소리에 마음이 즐겁구나

其五

芳辰⁴⁷⁾追逸趣 좋은 시절 우아한 정취 좇으니
 禁苑⁴⁸⁾信多奇 황제가 노닐던 뜰에 기이한 것 많네
 橋形通漢上 다리모양은 은하수와 통하고
 峰勢接云危 봉우리의 형세는 위태로운 구름에 맞닿아 있네
 煙霞交陰映 안개와 아지랑이 서로 섞었다 비쳤다
 花鳥自參差⁴⁹⁾ 화조는 스스로 들쭉 날쭉
 何如肆轍迹 어찌 수레 마음대로 질주하지 않을까
 萬里賞瑤池⁵⁰⁾ 만리의 요지에서 실컷 감상하려고 하나?

其六

飛蓋⁵¹⁾去芳園 빨리 수레몰아 향기로운 뜰에 나가
 蘭橈⁵²⁾遊翠渚 향나무 노를 저어 비취빛 물가를 노니네
 萍間日彩亂 부평초 사이에서 해는 눈부시게 어지럽고
 荷處香風舉 연꽃 도처에 향기나는 바람 이네

42) 옛 가곡 이름이다. 宋玉《對楚王問》：“客有歌于郢中者，其始曰〈下里〉，〈巴人〉，國中屬而和者數千人。……其爲《陽春》、《白雪》，國中屬而和者不過數十人。……是其曲彌高，其和彌寡”。

43) 《書·益稷》：“簫韶九成，鳳凰來儀”。

44) 《古今注·鳥獸》：“鶴千歲則變蒼，又二千歲則變黑，所謂玄鶴也。”《韓非子·十過》載，師曠鼓琴，一奏而有玄鶴集于廊門，再奏而玄鶴成列，三奏而長鳴舞蹈，

45) 본래는 춘추전국시대 鄭, 衛 두나라의 음악이다. 音調와 雅樂이 다르다. 유가에서 말한 공자의 “鄭聲淫”은 鄭衛의 음악이 음탕한 소리라는 의미이다.

46) 조화롭고 평안한 음악이다. 《論語·陽貨》：“惡鄭聲之亂雅樂也”

47)吉日이며 좋은 시절이다.

48) 禁苑은 천자의 정원이고, 백성들이 마음대로 진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49) 길고 짧음, 높고 낮음, 크고 작음이 일정하지 않다.

50) 신선이 있는곳(仙境), 전설에서 西王母가 살았던 곳이다.

51) 수레가 급히 가는 것이다. 曹植의 〈公孫離寺〉：清夜遊西園，飛蓋相隨(맑은 밤에 서쪽 뜰에서 노니다가 수레 빨리 몰아 서로 쫓아가누나).

52) 목란으로 만든 노. 귀하고 화려한 배를 대칭하기도 한다.

桂楫⁵³)滿中川 계수나무 노는 중천에 가득하고
 弦歌振長嶼 현악기 노래가 길다란 작은 섬을 진동시키네
 豈必汾河曲⁵⁴) 어찌 꼭 黃河 汾河의 계곡이 필요할까?
 方爲歡宴所 바야흐로 즐겁게 연회를 거행하는 장소가 되리

其七

落日雙闕⁵⁵)昏 해가 떨어지니 높은 쌍대궐이 어두워져
 回輿九重⁵⁶)暮 수레 물고 돌아오니 구중 궁궐 어둑어둑
 長煙散初碧 긴 연기 처음에는 푸른 색으로 흩어지고
 皎月澄輕素 밝은 달은 가볍고 밝게 비추네
 攀峴⁵⁷)玩琴書 휘장 걷어올리고 금서를 완상하고
 開軒引云霧 창문 열고 구름과 안개를 부르네
 斜漢⁵⁸)耿層閣 은하수는 층층 누각을 밝히고
 淸風搖玉樹⁵⁹) 맑은 바람 아름다운 나무를 흔드네

其八

歡樂難再逢 즐겁게 노니는것 다시 만나기 어려워니
 芳辰良可惜 좋은 시절 정말 애석하구나
 玉酒泛雲罍⁶⁰) 좋은 술은 구름 모양 술 항아리에 철철 넘치고
 蘭肴⁶¹)陳綺席 귀한 안주 비단자리에 벌여 놓았네
 千鍾⁶²)合堯禹 곡식이 가득차니 요임금 우임금에 합당하고

53) 계수나무로 만든 노. 귀하고 화려한 배를 대칭하기도 한다.
 54) 汾河는 水名이고 山西에 있다. 漢武帝 〈秋風辭〉에: “泛樓船兮濟汾河, 橫中流兮揚素波(떠 있는 누각배, 분하강을 건너네. 이리저리 흘러가네, 흰 파도 높이 솟아 오르고).
 55) 황궁 대문밖에 있는 좌우에 있는 높은 대.
 56) 〈九辯〉에 “君門九重”의 말로 천자의 거처가 깊어 있는 것을 형용한다. 후에 九重을 이용해서 황궁을 대칭하기도 한다.
 57) 창문의 휘장을 걷어올림.
 58) 은하수를 말한다. 斜는 《全詩校》에서는 ‘銀’이라고 썼다.
 59) 魏晉人들은 玉樹를 이용해서 사람의 인품과 용모가 뛰어난 것을 비유하기도 했다. 《世說新語·容止》에서는 후에 이걸로 美人의 자태나 모습을 대칭했다.
 60) 그림 모양을 조각하여 장식한 술 그릇이다.
 61) 안주가 좋다는 의미이다. 뜻은 향기가 마치 난(蘭)과 같다는 것이다. 嵇康 〈琴賦〉: “華堂曲宴, 密友近賓, 蘭肴兼御, 旨酒清醇(화려한 집에 연회열어 가까운 친구 손님으로 모셔 향기나는 안주로 대접하는데 술맛이 맑고 깨끗하네).
 62) 鍾은 고대 분량을 채는 도구이다. 天鍾은 곡식이 많은 것을 형용한다. 〈孔叢子·儒服〉: “堯舜

百獸諧金石⁶³⁾ 온갖 짐승 금석장단에 화답하네
 得志重寸陰⁶⁴⁾ 뜻을 얻으려면 촌음을 중히 여기고
 忘懷輕尺璧⁶⁵⁾ 1척 되는 벽옥은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其九

建章⁶⁶⁾歡賞夕 건장궁에서 달을 감상하는데
 二八盡妖妍 어린 시녀들은 요염하고 예쁘기 그지없네
 羅綺昭陽殿⁶⁷⁾ 비단으로 장식한 소양전에서
 芬芳玳瑁筵⁶⁸⁾ 향기로운 대모연회 열리네
 佩⁶⁹⁾移星正動 허리에 찬 구슬 움직이니, 별도 움직이고
 扇掩月初圓 부채는 둥근달을 가리네
 無勞上懸圃⁷⁰⁾ 애써 신선이 사는곳 올라갈 것 없이
 卽此對神仙 이곳에서 신선을 대하리

其十

以茲游觀極 여기에서 두루두루 보며 놀다가
 悠然獨長想⁷¹⁾ 한가롭게 홀로 오랫동안 생각에 젖네
 披卷覽前踪 책을 펼치고 선인들의 옛 자취 살펴보고

千鍾” 춘추시대 魯大夫인 季孫斯가 일찍이 공자에게서 千鍾의 곡식을 하사 받았다. 《孔子家語, 致思》에 보인다. 그후, 많은 상을 하사 받을 때 千鍾으로 형용한다.
 63) 많은 짐승들이 음악을 듣고 감동하여 일어나 춤을 춘다. 《尚書, 益稷》: “豫擊石拊石, 百獸率舞.”(내가 돌을 치고 두드리니 온갖 짐승 다 춤을 추네).
 64) 매우 짧은 시간. 《晉書, 陶侃傳》: “大禹聖者, 乃惜寸陰, 至于衆人, 當惜分陰.”(우임금은 촌음이 아깝고 대중들은 마땅히 분음이 아깝네).
 65) 직경이 一尺이 되는 옥. 《淮南子, 原道訓》: “故聖人不貴尺之璧, 而重寸之陰, 時難得而易失也.”(성인은 1척의 옥은 귀하지 않고, 짧은 시각을 중시하니 때때로 얻기 어렵고 잃기 쉽다).
 66) 漢의 궁전명. 宮은 어머어마하고 많은 궁전들과 人家를 지나서 長安城 未央宮 서쪽에 있다. 《漢書, 武帝紀》에 보인다.
 67) 漢 武帝때 後宮八구역 중에 있는 궁전이다. 漢 成帝때 황후인 趙飛燕이 그곳에서 살았다. 貴傾 後宮이다. 후에 소양전은 총애를 받는 后妃가 거주하는 궁전으로 사용되었다. 《三輔黃圖》卷三에 보인다.
 68) 대모로 장식된 자리(술자리).
 69) 허리띠에 장식으로 다는 구슬.
 70) 玄圃라고도 한다. 전설로 하늘위에 있는데 天界로 통하는 신선의 산으로 崑崙의 중간 층이다. 신선이 거주하는 곳이다. 《淮南子, 地形訓》에 보인다.
 71) 오랫동안 그리워한다. 《晉書, 成公綬傳》: “希高慕古, 長想遠思”(높은 곳을 바라보고 옛것을 그리워하는데 오래오래 생각하네).

撫躬尋既往	자신을 어루만지며 이미 지나간 것을 찾아보네
望古茅茨 ⁷²⁾ 約	옛날 띠와 갈대 지붕의 절약함을 보고
瞻今蘭殿 ⁷³⁾ 廣	오늘의 향기로운 궁전의 넓음을 보네
人道惡高危	사람 가는 길 높고 위태로움 싫어하니
虛心戒盈蕩 ⁷⁴⁾	마음을 비우고 제멋대로 노는 것을 경계하라
奉天竭誠敬 ⁷⁵⁾	하늘을 받들어 정성껏 공경 다하고
臨民思惠養 ⁷⁶⁾	백성들 앞에서는 은혜롭게 보살필 생각하네
納善察忠諫	선을 받아들이고 충간을 살피
明科慎刑賞	법조문을 밝혀 벌과 상을 신중히 하리
六五 ⁷⁷⁾ 誠難繼	여섯왕과 다섯 황제는 진실로 어렵게 계승하고
四三 ⁷⁸⁾ 非易仰	네 왕과 세 왕도 쉽게 우러러 보지 말라
廣待淳化敷	다방면으로 순박하고 넉넉함 실천하여
方嗣云亭 ⁷⁹⁾ 響	운정산의 울림을 이어받자

3. 太宗의 仁政

태종은 실제로 유학의 신봉자이며 공자의 심미관을 가졌다. 당 왕조는 老子의 후예를 자칭하여 道教를 국교로 정하였지만, 태종은 신선 따위에 대한 이론이나 주장에 대해 배격하고 秦始皇이나 漢武帝가 이를 신봉했던 사실을 비판하면서 스스로는 철저히 유교의 정신에 입각해서 치국의 방침을 세웠다. 그래서 당 왕조 건립 후 점차 周, 孔의 도를 제창하기 시작한 것이다.

72) 띠로 지붕을 덮다. 堯舜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전한다. “堂高三尺, 土階三等, 茅茨不剪, 采椽不刮”(집의 높이는 삼척, 흙 층계 세칸, 띠 지붕 손질하지 않고, 골라놓은 서까래는 다듬지도 않았네) 《史記, 太史公自序》에 보인다.

73) 산초향기가 나는 궁전.

74) 자만하다.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놀다.

75) 성실하고 신중하다. 《韓詩外傳》四: “惟誠感神, 達乎民心”(오로지 성실하며 신에게 감사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다).

76) 정성들여 기르다. 《漢書, 疏廣傳》: “惠養老臣”(늙은 신하를 정성들여 보살피다).

77) 六王은 즉, 夏禹, 商湯, 周武王, 周成王, 周康王, 周穆王을 가리키고, 五帝는 黃帝, 顓頊, 帝嚳, 帝堯, 帝舜을 가리킨다. 《左傳, 昭公四年》, 《史記, 五帝本紀》에 보인다.

78) “四”는 네명의 왕을 말하는데 즉, 夏禹, 商湯, 周文王, 周武王을 가리킴. “三”은 세 명의 왕으로 夏禹, 商湯, 周文王을 가리킨다. 《左傳, 成公二年》, 《孟子, 告子下》에 보인다.

79) 云云, 亭亭인데 모두 泰山부근에 있는 산 이름이다. 고대 제왕이 태산에서 제사 지낼때 云云山과 亭亭山에서 참선을 하였다. 《史記, 封禪書》에 보인다. 그래서 云亭은 제왕이 제사 지내는 것으로 형용하였다.

당 태종은 친히 “짐이 좋아하는 바는 단지 堯, 舜, 周, 孔의 道이다. 새에 날개가 있고, 물고기에 물이 필요한 것 처럼 그것을 잃으면 죽고 잠시도 없어서는 아니 되느니라”⁸⁰⁾ 말하며 貞觀 二年에 전문적으로 孔子廟堂을 설치하고 공자를 성인 으로 삼았다. ⁸¹⁾ 貞觀4년에는 당태종이 명을 내려 전국의 州와 縣까지도 모두 孔子廟를 설치하였다.

공자가 제자교육에서 가장 근본으로 생각한 것은 詩와 音樂이다. 공자 생각에 시와 음악은 인간형성의 근본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음악은 사람의 性情을 가장 잘 나타내고, 그 성정을 가장 잘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민심의 향배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것이 음악이고 사람을 올바르게 교화 시켜 주는 것도 음악이다.

詩序에 “治世의 음악은 편안하면서도 즐겁고 그 정치는 조화가 잘 되며, 난세의 음악은 원망하면서도 노여운 듯 하고 그 정치는 도리에 어긋나며, 망국의 음악은 슬프면서도 선정적이고 그 나라 백성들은 곤경에 빠진다.”⁸²⁾ 書經에서도 당시에 有苗부족이 제후국으로 나라의 명을 따르지 않고 반발을 일삼고 있어 舜임금이 武力으로 굴복시키려 했지만 되지 않자 나중에는 文舞와 武舞 로써 감복시켜 항복하게 한 일이 있었다.⁸³⁾

이처럼 어진 德을 지닌 治者가 음악을 통하여 德化를 펴나갈 때 진실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太宗 또한 유가를 숭상하고 유가들이 가장 尊崇하는 經典중 하나인 詩經을 백성을 다스리는데 사용한 것이다.

〈帝京篇〉 其 4四首에서 :

鳴笳臨樂館	호르라기 불며 악관에 도달하니
眺聽歡芳節	좋은계절 기뻐하는 소리 멀리 들려오네
急管韻朱弦	빠른 피리소리 붉은 현이 조화를 이루어
清歌凝白雪	맑은 가락에 따뜻한 봄 흰눈이 아름답고 우아하네
彩鳳肅來儀	아름다운 봉황새 엄숙한 자태
玄鶴紛成列	현묘한 학은 분분히 열을 짓고

80) 《資治通鑑》卷一九二 “朕所好者, 唯堯舜周孔之道, 以爲如鳥有翼, 如魚有水, 失之則死, 不可暫無耳”.
 81) 《貞觀政要》卷7의 〈崇儒學〉篇 과 《資治通鑑》卷193, 《新唐書, 禮樂志》에 기재되어 있다.
 82) 《詩傳》詩集傳,序, 景文社.
 83) 《書經》大禹謨: “帝曰咨禹惟時有苗弗率,.....帝乃誕敷文德, 舞干羽于兩階七旬有苗格.”.

去茲鄭衛聲 정나라 위나라 음악 버리니
雅音方可悅 좋은 소리 마음이 즐겁구나

예전부터 詩經의 鄭風과 衛風은 음탕한 것이라고 일컬어 왔다. 그러나 태종도 좋은 음악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생각한 것이다. 이게 바로 공자의 가르침이고 유학 정신이다.

태종의 신하중에 王珪 라는 자가 있었다. 王珪가 어느날 漢나라와 六朝와 隋나라를 비교하면서 “漢나라의 재상들은 경서에 정통한 자들이었고 그 경서를 인용하여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하여 그 결과 백성을 예의바르게 가르칠 줄 알았고, 정치는 태평성세를 이루었는데 비해 육조나 수는 武를 중히 여기고 유학을 가깝게 여기면서 유교의 도덕은 땅에 떨어지고 후한 인정과 풍습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황제에게 말하자 태종은 전적으로 찬성하였다고 한다.⁸⁴⁾ 태종의 유학존중 사상이 신하들의 권유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태종은 학문을 좋아하여 弘文館을 두고 四部書 20만권을 모으고 천하의 문학에 능한 사람을 뽑아 일을 보게 했다. 태종은 정사를 듣는 여가에는 학사들을 內殿으로 불러 옛날 사람의 언행을 논의하거나 고금의 정치의 득실을 비교 검토하여 때로는 밤중에 가서야 겨우 그만 두는 열성이 있었다고 한다.⁸⁵⁾ 그의 〈帝京篇〉序에서

予以萬機之暇, 遊息藝文(나는 제왕의 일상의 번다한 정무중에 한가할 때면 예술과 문학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한다) ”

평소 그의 여가생활의 일면을 알 수 있다.

태종은 국정을 생각할 때도 언제나 “천하를 武功으로써 얻을 수는 있을 지라도 그것이 다스려 평안히 유지되는 것은 文德으로써 해야 한다”는 武平文治의 생각을 가지고서 文을 숭상하고 師를 존경하는 정책을 폈다.⁸⁶⁾

84) 《貞觀政要》政體篇, 第3章.

85) 《十八史略》曾先之著, 尹在瑛譯, 博英社, 250쪽.

86) 《唐の太宗と隋唐文化》清家瑩三郎, 東京 1942, 12쪽.

태종의 文治主義는 《貞觀政要》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貞觀 二年에 侍臣에게: “정치의 요체는 무엇보다도 得人에 있으니 능력이 없는 자를 등용하면 반드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인재의 등용은 반드시 德行과 學識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87)

〈帝京篇〉 其二首에서도

岩廊罷機務	조정에서 업무 파하고
崇文聊駐輦	승문관에서 잠시 수레를 멈추네
玉匣啓龍圖	옥상자에서 옛책을 꺼내어
金繩披鳳篆	금먹줄로 고문자를 펼치네
韋編斷仍續	가죽줄로 묶은 책 끊어지면 또 묶고
縹帙舒還卷	쪽빛의 책 거풀 폼다가 또 접네
對此乃淹留	이것으로 근심을 잊어보며
歛案觀墳典	책상에 기대어 고전을 읽네

조정에서 업무 파하고 승문관에 들러 옛 典籍을 펼치고 책상에 기대어 읽으며 근심과 시름을 잊는 왕의 모습 눈앞에 펼쳐지는 듯 하다. 其 七首에서도

落日雙闕昏	해가 떨어지니 높은 쌍대궐이 어두워져
回輿九重暮	수레 물고 돌아오니 구중 궁궐 어둑어둑
長煙散初碧	긴 연기 처음에는 푸른 색으로 흩어지고
皎月澄輕素	밝은 달은 가볍고 밝게 비추네
擘幌玩琴書	휘장 걷어올리고 금서를 완상하고

어두워지면 궁궐에 들어와 휘장 걷고 책을 읽으며 때로는 거문고를 뜯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의 仁政은 이와 같은 유학승상과 文德이 바탕이 된다.

87) 《貞觀政要》崇儒學篇 「貞觀二年太宗謂侍臣曰爲政之要惟在德人用非其才必難政治今所任用必須以德行學識爲本」.

4. 太宗의 治道

貞觀 元년에 태종은 “훌륭한 前王의 사적을 보면 좋은 귀감이 되기에 족하다”⁸⁸⁾고 했다.

〈帝京篇〉 其十首에서

以茲游觀極	여기에서 두루두루 보며 놀다가
悠然獨長想	한가롭게 홀로 오랫동안 생각에 젖네
披卷覽前踪	책을 펼치고 선인들의 옛 자취 살펴보고
撫躬尋既往	자신을 어루만지며 이미 지나간 것을 찾아보네
望古茅茨約	옛날 띠와 갈대 지붕의 절약함을 보고
瞻今蘭殿廣	오늘의 향기로운 궁전의 넓음을 보네
人道惡高危	사람 가는 길 높고 위태로움 싫어하니
虛心戒盈蕩	마음을 비우고 제멋대로 노는 것을 경계하라
奉天竭誠敬	하늘을 받들어 정성껏 공경 다하고
臨民思惠養	백성들 앞에서는 은혜롭게 보살필 생각하네
納善察忠諫	선을 받아들이고 충간을 살펴
明科慎刑賞	법조문을 밝혀 벌과 상을 신중히 하리
六五誠難繼	여섯왕과 다섯 황제는 진실로 어렵게 계승하고
四三非易仰	네 왕과 세 왕도 쉽게 우리러 보지 말라
廣待淳化敷	다방면으로 순박하고 넉넉함 실천하여
方嗣云亭響	운정산의 울림을 이어받자

책을 펼치고 선인들의 옛 자취 살펴보고 자신을 어루만지는 태종의 태도와 현재의 호화로운 궁전과 요임금 순임금 시대의 띠로 만든 지붕과의 비교, 黃帝, 顓頊, 帝嚳, 堯, 舜, 夏禹, 商湯, 周의 武王, 周成, 康王, 穆王을 본받고자 다짐하며, 夏禹, 商湯, 周文王도 쉽게 우리러보지 말자고 다짐하는 태종의 마음 가짐이 시에 잘 표현되어 있다

貞觀 4년에 신하들과의 대화에서 “옛날 五齊(소호금천씨少昊 金天氏, 전욱고양씨 顓頊高陽氏, 제곡 고신씨 帝嚳高辛氏, 제요도당씨 帝堯 陶唐氏, 제순유우씨 帝舜有虞氏), 三王(夏의 禹王, 殷의 湯王, 周의 文王武王) 은 선정을 베풀어서 그 백

88) 위의 책 仁義篇 第一章 “見前王成事足爲元龜”.

성의 생활과 생각을 변경시키지 않고 잘 교화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대의 백성이라도 인의의 도로써 하면 반드시 잘 다스려진다는 증거입니다. 또 은나라 湯王이나 주나라 武王은 다 큰 환란의 뒤를 이어받아 덕으로써 다스려 태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황제의 도로써 다스리면 황제가 될 수 있고, 왕의 도로써 다스리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황제가 되고 왕이 되는 데는 어떻게 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태평은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말에 황제는 따랐다고 했다.⁸⁹⁾ 신하들 또한 옛 성인들의 예를 황제에게 많이 들려주었던 것 같다.

태종이 추구하고자 했던 治道는 역시 요임금과 순임금이었다. 〈帝京篇〉其八首에

歡樂難再逢	즐겁게 노니는것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
芳辰良可惜	좋은 시절 정말 애석하구나
玉酒泛云壘	좋은 술은 구름 모양 술 항아리에 철철 넘치고
蘭肴陳綺席	귀한 안주 비단자리에 벌여 놓았네
千鍾合堯禹	곡식이 가득차니 요임금 우임금에 합당하고
百獸諧金石	온갖 짐승 금석장단에 화답하네
得志重寸陰	뜻을 얻으려면 촌음을 중히 여기고
忘懷輕尺璧	1척 되는 벽옥은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좋은 술 아름다운 항아리에 철철 넘치게 있고, 비단자리에 귀한 안주가 있고 곡식이 가득 차 있으니 요임금 우 임금 시대에 필적할 만 하다 고 기뻐하고 있다.

〈帝京篇〉序 에서도

“予追踪百王之末, 馳心千載之下, 慷慨懷古, 想彼哲人, 庶以堯舜之風, 蕩秦漢之弊, 用咸英之曲”

백성들을 요순의 태평한 시대에 살게 하고 秦漢의 폐단을 없애고 황제가 생각하는 즐거움을 백성에게 베풀겠다는 포부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다.

태종은 옛 왕의 모습을 보며 쓸데없이 사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帝京

89) 注85)와 같음. 256-257쪽.

篇〉序에서

“至于秦皇`周穆, 漢武`魏明, 峻宇雕牆, 窮侈極麗, 征稅殫于宇宙, 輻迹遍于天下, 九州無以稱其求, 江海不能躡其欲, 覆亡顛沛, 不亦宜乎!”

秦王, 周穆, 漢武, 魏明 시대의 높고 큰 건물, 조각하고 장식한 벽, 세금을 거두어 이렇게 사치하느라 나라가 곤궁에 빠지고 망하게 되었다고 회상한다. 其十首에서 처럼 옛날 때 지붕 올렸던 절약함을 실행하겠다고 한다.

望古茅茨約 옛날 띠와 갈대 지붕의 절약함을 보고
瞻今蘭殿廣 오늘의 향기로운 궁전의 넓음을 보네

어떤 사람이 형벌을 무겁게 해서 도둑 막기를 청했다. 에에 태종은: “사치를 하지 말고 경비를 절약하고 부역을 가볍게 하며 세금을 적게 하고 청렴한 관리를 골라 써서 백성이 먹고 입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한다면 저절로 도둑은 없어질 것이다. 무엇 때문에 법을 무겁게 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⁹⁰⁾ 또한 “천자는 그 나라에 의해 스는 것이오, 나라는 백성에 의해 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괴롭혀서 천자 한 사람의 땀땀이에 쓰는 것은 마치 자기의 살을 베어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배는 불려져도 몸은 죽어가는 것과 같이 임금은 편안할 지라도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⁹¹⁾ “관리가 뇌물을 받고 법에 걸리는 것이나, 제왕이 사치와 욕망에 몸을 떨어뜨려 나라를 망치는 일이 어찌 서역의 호고의 가소로운 것과 다를 것이 있겠느냐?”⁹²⁾

이처럼 태종은 사치를 물리치고 청렴한 생활을 강조하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한 자이다.

5. 結言

90) 위의 책 250쪽.

91) 위와 같음.

92) 胡賈: 西域에 있는 장사치로서 아름다운 구슬을 손에 넣으면 자기의 몸을 찢고 그 속에 감추어 두는 자.

서기 626년 唐의 2代 황제가 된 태종이 비록 23년간 짧게 국정을 다스렸지만 ‘貞觀之治’로 존경받고 명군으로 칭송받는 이유는 唐을 창건했다는 것 보다 唐을 잘 다스려 나갔다는 守成에 있을 것이다. 어떻게 수성했는지 그의 〈帝京篇〉詩를 통해 살펴보았다. 〈帝京篇〉에는 그의 계획과 다짐이 잘 그려져 있다.

태종은 유학을 숭상하고 공자를 존경하여 유학에서 말하는 음악을 통해 백성들을 德化해 가며 六經을 가르쳐 나라를 올바르게 교화하고자 했다. 그는 또한 학문을 좋아하여 여유가 있으면 책을 펼치고 시름을 달래기도 하였다. 그의 덕행은 그가 읽은 유가경전에서 배웠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늘 선인들의 옛 자취를 살피고 聖王의 가르침과 행동을 따르고자 했고, 충분히 황궁이 아름답고 훌륭한데 굳이 곤륜산의 瑤池와 신선이 노닐던 동산을 찾지 않으려는 자세, 실용적인 것을 버리고 화려함을 추구하여 인간의 욕심을 쫓는 것을 大道를 어지럽히는 일이라 하며 경계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貞觀12년에 “ 숲이 깊으면 많은 새가 서식하고 개울의 흐름이 크면 많은 고기가 놀며, 사람이 인의 도덕의 덕행을 거듭 쌓으면 천하의 사람들이 자연히 그 사람을 사모하여 따른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내 몸에 달라붙는 재앙은 두려워서 피할 줄 알면서도 인의의 도를 실행하는 일은 알지 못한다. 인의의 도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태종이 말하자 王珪가 정중히 머리 숙여 예를 표했다고 한다.⁹³⁾ 태종이 그렇게 실천했기에 唐初 貞觀之治가 가능했던 것이다.

〈參考文獻〉

- 吳兢 《貞觀政要》 上海 上海古籍出版 1978.
 董誥 等 《全唐文》 北京 中華書局 1983.
 胡震亨 《唐音癸簽》 上海 上海古籍出版 1981.
 趙克堯 許道勛 《唐太宗傳》 北京 人民出版社 2000.
 陳貽煥 《全唐詩》 北京 文化藝術出版 2001.
 司馬光 《資治通鑒》 北京 中華書局 1956.

93) 《貞觀政要》仁義篇, 第六章.

- 劉昫《舊唐書》北京 中華書局 1975.
陳寅恪《唐代政治史述論稿》上海 上海書局 1947.
오궁, 김원중 옮김 《정관정요》 서울 현암사 2003.
안길환편역 《정관정요제왕학》 서울 책 만드는집 2007.
曾先之著 尹在瑛譯 《十八史略》博英社 1980.
劉澤華 노승현 《중국고대정치사상》 서울 예문서원 1994.
鄭成煥譯 《中國皇帝列傳》 서울 汎潮社 1985.
鄒紀孟 《論唐太宗的社會政治詩》北京 中國青年政治學院學報 1987.
李曉青《論唐太宗的政治詠懷詩》北京 邢台學院學報 2006.

《中文提要》

唐太宗李世民是中国历史上一位十分杰出的皇帝, 对于他的文治武功的赞颂, 史不绝书, 而对他的诗歌创作, 却很少有人重视。其实, 他也是一位颇具特色的诗人。

贞观年间, 天下安定、政权稳固, 唐太宗喜欢作诗, 这位开创了有名的贞观之治、被後代奉为有道明君的唐太宗, 《全唐诗》收其诗作一百多首, 仅从数量而言, 在前此的开国之君中, 他也是最多的一位了。〈帝京篇〉十首并序是唐太宗现存的阐发诗歌创作主张的最为系统、最为具体的文字, 为研究其文学思想最重要的材料之一。这里翻译〈帝京篇〉十首并序, 并进一步分析唐太宗的政治成就, 内容为三部分:

- 一. 太宗仁政
- 二. 太宗治道

唐太宗不仅尊孔, 而且敬仰历代名儒与经学大师。他重视文化、文艺的作用, 这也是他倡导以文治国的一个方面。〈帝京篇〉十首阐述了他治国惠民的政治思想。诗中指出治国不善, 可能导致国家覆灭, 因此必须保持清醒的头脑, 警惕政治上的自满与生活上的放荡。

关键词: 帝京篇 治道 贞观之治 仁政 大道

이 논문은 2011년 11월 20일에 접수되어 2011년 1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1년 12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